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에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BNK 이어 전 지주사 대상

금융감독원 19~23일 검사

사외이사 독립성 약화 등도

“선진화TF 반영…자율 유도”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전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iM금융지주·BNK금융지주·JB금융지주 등 8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관련 실제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하면서 BNK금융지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 지주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하는 것이다.

은행지주들이 지난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편법으로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집중 점검한 다는 취지다.

이사회와 참회를 구축해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와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된 점,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수준인 점,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하나금융지주가 회장 후보 롤리스트 선정 직

전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 규정’을 바꿔 연임을 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빈대인 회장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BNK금융지주의 경우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15일이지만, 실제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다는 점도 꼽혔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고,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지배구조 내규나 조직 등 외관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하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 지주 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은행권과도 공유해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 13일 본부 1층 로비에서 농협목우촌 전남센터와 함께 2026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수 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농협 광주본부, 설 앞두고 목우촌 우수제품 판촉전

임직원 대상 홍보·판매… 농심천심 실천·계열사 상생 강화

농협 광주본부는 최근 본부 1층 로비에서 농협목우촌 전남센터와 함께 2026 병오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수 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철호 농협 전남본부장

과 임철현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한제규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협의 핵심 가치인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 실천과 더불어 농협목우촌의 품질 경쟁력을 알리고 명절 선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목우촌 전남센터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인 ‘생생육포 세트’를 비롯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대표 상품으로는 국내산 원료육을 사용한 ‘목우촌 한돈 구이용 세트’, 풍부한 육즙과 깊은 풍미를 살린 프리미엄 햄·소시지 세트,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정간

편식(HMR) 제품군 등이 전시돼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농협목우촌은 우리 축산물을 기반으로 국민 식탁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온 대표 브랜드”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계열사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설 명절을 맞아 우수한 국내 축산물을 소비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목우촌 설 선물세트 및 제품발주 관련 문의는 농협목우촌 전남센터(062-612-6500)를 통해 가능하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코스피, 9일째 고공행진…연일 사상 최고치

4700선 첫 돌파…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

코스피가 14일 9거래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 47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53p(0.16%) 내린 4685.11로 출발했지만 30.46p(0.65%) 오른 4723.10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4669.32까지 떨어지며 널뛰기 장세를 보이다 상승장으로 전환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6018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322억원, 3868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5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323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80p(0.72%) 떨어진 942.18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05p(0.22%) 오른 951.03으로 출발해 장 초반 박스권에 서 등락하다가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239억원을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40억원, 1555억원을 순매도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8.21p(0.80%) 내린 4만 9191.9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53p(0.19%) 떨어진 6963.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4.03p(0.10%) 밀린 2만3709.87에 각각 장을 끝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나타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광주 고용률 4년 연속 상승 완만한 회복세

작년 60.8%…전남은 고용 여건 위축

지난해 광주는 고용률이 상승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간 반면, 전남은 2년 연속 하락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호남데이터팀이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고용률은 60.8%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광주 고용률은 2021년 58.2%를 시작으로 2022년 58.6%, 2023년 60.1%, 2024년 60.6%에 이어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같은 기간 77만 2000명에서 79만9000명까지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80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2024년 77만4000명에서 지난해 77만6000명으로 2000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3만 6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2.4%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으나, 농림어업 취업자는 2만20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23.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만 실업 지표는 악화됐다. 지난해 광주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2021년 2만8000명에서 2022년 2만2000명, 2023년 2만명으로 매년 감소하던 실업자 수는 2024년 2만 4000명으로 늘어난 뒤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2021년 3.6%에서 2023년 2.5%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3.0%, 지난해 3.3%로 다시 상승했다.

전남은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모두 감

소하며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지난해 전남 고용률은 65.6%로 전년 대비 0.5%p 하락했다. 전남 고용률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66.3%, 2023년 66.9%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2024년 66.1%로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는 2021년 100만8000명에서 2023년 104만2000명까지 증가했으나, 2024년 103만200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2만8000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취업자는 2024년 100만4000명에서 지난해 99만7000명으로 7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가 7만1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15.6%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나, 농림어업은 21만명에서 19만2000명으로 8.8% 줄어 광주와 마찬가지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실업자는 지난해 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늘었다. 2021년 2만4000명에서 2023년까지 감소 또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2024년(2만8000명)부터 증가세가 이어졌다. 실업률 역시 2021년 2.3%에서 2023년 2.2%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2024년 2.7%, 지난해 3.0%로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전국 고용률은 62.9%로 전년보다 0.2%p 오르며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전남신보, 소상공인 보증지원 1000억 확대

4500억→5500억…정책자금·전남 소상공인 육성자금 등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와 내수침체 등에 따른 경영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도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기반으로 보증정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신보는 올해 지역 소멸위기와 더불어 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액한 5500억원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보증신청 및 심사 간소화, 현장 상담 확대 등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성·편의성 증대에 초점을 맞춰 예년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 및 전남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군 이차보전 자금 등 총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남도 보증료 지원사업(3억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총출한 사회안전망 실현이라는 목표표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300억원), 코로나피해 분할상환 특별보증(300억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100억원) 등 다양한 상품을 지원하며, 중·저신용자 지원특별보증(500억원), 소상공인 버팀목 마이너스증(100억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지원 확대를 지속한다.

이와 함께 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보증(300억원)을 통해 여수, 광양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확대를 지역 상권 침체우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금융버스 ‘가드림’사업을 통해 보증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연 70회로 확대 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올해에도 더 총출한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다”며 “취약계층과 금융소외 지역 에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장애인 자료 등 3종 추가…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열린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공제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올해는 3종 추가한 45종을 제공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 사용증 증빙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 제공이 더 정교해진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인적 공제 대상으로 잘못 올려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11~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예외로 제공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도록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도 24시간 제공한다.

이율리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능해볼 수도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모두가 공제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안경구매내역 중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대상이 아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